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Persons: a Gender Comparison

이성은¹

Sungeun Lee¹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 수준을 파악하고 성별을 구분하여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7,870명이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환경에 대한 불안,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과 식품위해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건강상태, 환경에 대한 불안,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과 소득은 여성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도물에 대한 불안과 같이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불안은 모두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물에 대한 불안이 식품위해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식품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식품위해와 관련된 교육에 있어 성별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어 : 노인, 환경불안, 식품위해, 식품불안, 성별비교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adults and identified factors affecting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persons by gender. For this study, 2018 Social Survey data from Statistics Korea were analyzed and study sample consists of 7,870 older adults aged 65 and over.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factors, health status, anxiety about environment,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 and anxiety about food haz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ealth status, anxiety about environment,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adults. Also, education level and income had significant effects on food hazards of female older adults only. Particularly, all factors related to environmental anxiety like anxiety about radioactivity, pesticide/chemical fertilizer, and tap water had significant effects on anxiety about food hazards, and anxiety about tap water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hat affected anxiety about food hazards.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is a need for intervention to improve food safety and to decrease anxiety about food hazards of older adults and gender should be considered in education about food hazards.

Keyword : Older persons, Anxiety about environment, Food hazards, Food anxiety, Gender comparison

¹ Department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Professor]
e-mail: lees@pusan.ac.kr

Received(March 15, 2021), Review Result(1st: March 31, 2021), Accepted(April 9, 2021), Published(April 30, 2021)



© 2021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1년 현재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1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39.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고령화와 함께 노인계층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노년기가 강조됨에 따라 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건강은 활발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 조건으로서 노인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식품은 매일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식품과 관련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식품 확보의 어려움과 같은 식품 미보장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어 왔으나 [3][4], 식품의 위해성에 대해 노인이 인지하는 불안감이나 이와 관련된 요인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의 해소와 신뢰확보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5]. 방사능이나 식품첨가물 등과 관련된 식품의 안전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 위해에 대한 불안은 대표적인 사회적 불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6].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실제적인 위험보다 증폭된 위해 인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이나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미인지 모두 비합리적 행동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식품에 대한 노인의 인식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은 식품의 구매와 섭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감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6][7],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라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 원자료로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분석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2018년 사회조사의 경우 전국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조사로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감 및 환경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8],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로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사회조사 응답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연구대상으로 추출하였으며 총 7,870명의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된 모든 변수의 측정도구는 2018년 사회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활용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는 식품위해 불안으로 우리 사회가 불량식품이나 식중독 등 먹거리 분야에 있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경우 매우 안전하다(1)부터 매우 안전하지 않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인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만 나이가 사용되었고, 교육수준의 측정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1)부터 대학교 졸업 이상(4)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자(1)와 그 외 기타(0)로 구분되었다. 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의미하며 100만원 미만(1)부터 700만원 이상(8)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상태는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관한 주관적 평가로서 응답은 매우 좋다(1)부터 매우 나쁘다(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를 역코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안은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는지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전혀 불안하지 않다(1)부터 매우 불안하다(5)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은 다른 사람들이 평소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아주 잘 지킨다(1)부터 전혀 지키지 않는다(5)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AS 9.4 통계 패키지가 활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수의 전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전반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발생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했으며, VIF 값은 2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이 43.1%를 차지했으며 여성노인이 56.9%를 차지해 여성노인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의 경우 평균 74.1세(sd=6.7)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평균 .4(sd=.5)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2.4%, 기타의 경우가 37.6%로 유배우 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 2.2(sd=1.4)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약 100-200만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의 경우 평균 2.7(sd=1.0)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s		Mean	SD	%
Age		74.1	6.7	
Education		.4	.5	
Marital status	Married			62.4
	Other			37.6
Income		2.2	1.4	
Health status		2.7	1.0	
Anxiety about radioactivity		3.3	1.0	
Anxiety about pesticide/chemical fertilizer		3.3	1.0	
Anxiety about tap water		2.8	.9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		2.7	.8	
Anxiety about food hazards		3.0	.9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안을 살펴보면 방사능의 경우 평균 3.3(sd=1.0), 농약 및 화학비료의 경우 3.3(sd=1.0), 수돗물의 경우 평균 2.8(sd=.9)로 나타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방사능이나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평균 2.7(sd=.8)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식품위해 불안은 평균 3.0(sd=.9)으로 나타났다.

3.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식품위해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교육수준, 소득,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은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과 건강상태는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Table 2] Correlation Analyses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a dependent variable

	(a)	(b)	(c)	(d)	(e)	(f)	(g)	(h)	(i)	(j)
Anxiety about food hazards(a)	1									
Age(b)	-0.049***	1								
Education(c)	0.062***	-0.330***	1							
Marital status(d)	0.001	-0.294***	0.299***	1						
Income(e)	0.059***	-0.192***	0.230***	0.160***	1					
Health status(f)	-0.042***	-0.244***	0.256***	0.152***	0.231***	1				
Anxiety about radioactivity(g)	0.246***	-0.086***	0.076***	0.027*	0.076***	0.018	1			
Anxiety about pesticide / chemical fertilizer(h)	0.260***	-0.089***	0.080***	0.016	0.058***	0.021	0.537***	1		
Anxiety about tap water(i)	0.256***	-0.079***	0.073***	0.006	0.071***	0.013	0.399***	0.526***	1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j)	0.139***	-0.066***	0.042***	0.033**	0.015	-0.041***	0.071***	0.102***	0.078***	1

*p<.05, **p<.01, ***p<.001

3.3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간 비교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간 비교

[Table 3] Factors Affecting Anxiety about Food Hazards among Older Persons: A Gender Comparison

	Male		Female	
	b	β	b	β
Age	-0.0020	-0.0143	-0.0009	-0.0076
Education	0.0522	0.0292	0.1073	0.0564***
Marital status	-0.0148	-0.0062	-0.0270	-0.0158
Income	0.0204	0.0333	0.0234	0.0399**
Health status	-0.0714	-0.0808***	-0.0407	-0.0437**
Anxiety about radioactivity	0.0878	0.1028***	0.1177	0.1350***
Anxiety about pesticide/chemical fertilizer	0.1115	0.1163***	0.0940	0.0983***
Anxiety about tap water	0.1217	0.1294***	0.1294	0.1424***
Perceived compliance levels of others	0.1151	0.1156***	0.1008	0.0951***
R2	.1127		.1193	
Adjusted R2	.1104		.1175	
F	47.76***		67.21***	

** p<.01, *** p<.001

먼저 남성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건강상태,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안에 있어서는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한 불안 모두 식품위해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 방사능에 대한 불안, 건강상태 순으로 남성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노인의 경우 식품위해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노인의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식품위해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남성노인과 마찬가지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불안의 경우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한 불안 모두 식품위해 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 수돗물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타인의 준법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돗물에 대한 불안,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 교육수준, 건강상태, 소득 순으로 여성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이 인지하는 식품위해 불안의 수준을 살펴보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들은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에 있어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안전에 대한 확신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먹거리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우리사회에서 먹거리가 단순히 생존에 국한된 이슈가 아니며 건강과 안전이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먹거리와 관련된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요인들은 건강상태, 방사능에 대한 불안,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 수돗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불안은 모두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에게서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식품위해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일 일정량의 물을 평생 마시게 되므로 먹는 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미량일지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으며, 수돗물을 음용수로 이용하는데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11].

그러나 수돗물 음용의 활성화는 개인적인 경제적 혜택 뿐 아니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12]. 본 연구에서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식품위해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은 수돗물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부족은 노인의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에 사용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위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음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농약 및 화학비료에 대한 불안도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

품 안전성과 관련된 소비자의 잔류농약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편이며 주로 채소, 과일, 곡류의 잔류농약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채소의 잔류농약을 우려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3]. 이와 관련해 잔류농약의 위해성 및 세척방법별 잔류농약의 양 등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3].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노인일수록 식품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및 화학비료가 노인의 만성질환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식품섭취시 잔류농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에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노인의 경우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안전 문제에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이 인지하는 식품위해와 관련해 수돗물, 방사능, 농약 및 화학비료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위험 지각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식품위해 불안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정확한 정보제공과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예방적 행동 및 생활양식 등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식품위해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식품안전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14]와 유사하다. 가공산업으로서의 식품 생산체계에서는 식품생산 과정에서 수많은 단계가 존재함에 따라 국가의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가 어려우며, 글로벌 먹거리 생산체계에서는 개별 국가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신뢰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0].

수입식품의 오염, 식품의 제조와 포장 과정에서 사용되는 첨가물,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들의 유통 등 식품안전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유발하게 된다 [15]. 따라서 식품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강화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분석결과 식품위해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성별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노인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교육수준과 소득이 식품위해 불안감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남성노인의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식품안전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4],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식품위해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경제적 요인 및 먹거리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능력과 관련되어 먹거리 불안 및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6]. 이러한 점에서는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

노인의 경우 식품위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한됨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 가능성도 추측해볼 수 있다.

소득,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여성노인의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과 연관됨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노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식품위해에 대한 인지된 불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의 차이는 이들의 식품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양 및 건강상태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는 식품위해에 대한 불안의 영역에 있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식품위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거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영양소 섭취량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17], 여성노인 중 독거노인과 같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정보제공의 통로가 제한되어 있는 대상은 고위험 집단으로 설정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을 위해 교육내용의 구성이나 교육의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여성 노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식품 위해 불안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인식 등 관련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소득과 교육수준별로 식품 위해 불안의 원인과 인식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본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Major population indicator(gender ratio,population growth rate, population structure, dependency ratio etc.)National", kosis.kr,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checkFlag=N, (accessed March 8, 2021).
- [2] M. I. Kim, S. W. Lee, H. J. Kim, "A study on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according to their preparation for old age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Health and Social Review, vol. 33, no. 3, September 2013, pp. 327-360, doi: 10.15709/hswr.2013.33.3.327.
- [3] Y. J. Ya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utrient intakes and mental health status of older Korean adults depending on household food security: based on the 2008-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vol. 20, no. 1, 2015, pp. 30-40.
- [4] J. Y. Cho,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using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ealth and Social Review, vol. 35, no. 4, December 2015, pp. 375-406. doi: 10.15709/hswr.2015.35.4.375.
- [5] J. S. Shim, "A Study on Improving Food Safety and Trust in a Risk Society : Centering on the Perspective of Security and a Sense of Security throughout Risk Communication as a Social System",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 vol. 22, no. 3, September 2017, pp. 107-122.

- [6] S. M. Jun, "Effect of consumer anxiety about food hazards on the purchase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and satisfaction of food consumpt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and income",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vol. 45, no. 2, August 2014, pp. 77-96. doi: 10.15723/jcps.45.2.201408.77.
- [7] J. Y. Sah, J. S. Yeo, "Levels of consumer anxiety and its determinants: focus on genetically-modified foods, food additives, and mad cow diseas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vol. 25, no. 1, February 2014, pp. 145-172.
- [8] Statistics Korea, "Year 2018 Social survey results(Family·Education·Health·Safety·Environment)",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3/index.board?bmode=read&bSeq=&aSeq=3715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accessed March 8, 2021).
- [9] P. D. Allison,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SAS system: theory and application*, SAS Institute Inc, 1999.
- [10] H. S. Park, "The structural mechanism of food anxieties/scares and its emotional dynamics", *Korean Studies Quarterly*, vol. 33, no. 2, June 2010, pp. 161-193. 2010. doi: 10.25024/ksq.33.2.201006.161.
- [11] Y. S. Eom, "Consumers' subjective risk perceptions of tap water and stated preferences for safe drinking water",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 15, no. 2, March 2006, pp. 147-175.
- [12] H. G. Koo, A. R. Choi, X. J. Jiang, S. H. Yu, "A study on green consumption education program for tap water drinking enhancement",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vol. 14, no. 2, June 2018, pp. 105-131. doi:10.15790/cope.2018.14.2.105.
- [13] H. C. Kim, M. R. Kim, "Consumers' recognition and information need about food safety - focused on pesticide residues, foodborne illness, and food additiv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vol. 16, no. 4, October 2001, pp. 296-309.
- [14] S. W. Yoon, J. S. Jeong, H. J. Jin, "Analysis for factors on the level of consumers' coenesthesia for food risk and hazard",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vol. 30, no. 4, December 2013, pp. 117-138.
- [15] S. L. Lee, J. Y. Son, H. R. Ha, M. J. Kim, "Consumer anxiety on foods hazards and satisfaction with food-related life : the effects of subjective consumer competency and safe food purchasing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olicy Studies*, vol. 45, no. 2, August 2014, pp. 137-157. doi: 10.15723/jcps.45.2.201408.137.
- [16] S. U. Kim, C. K. Kim, H. J. Lee, "Socio-economic differentiation of food anxiety and food consump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vol. 22, no. 1, June 2012, pp. 215-264.
- [17] H. K. Kim, "Influence of age and education on food consumption and nutrient intakes of older women living alone",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vol. 11, no. 1, February 2001, pp. 82-88.